

극심한 취업난에 준비없이 내몰리 듯 창업한다

창업률 광주 18.9%·전남 16.7%... '나홀로 사장' 전남 전국 2위 신보 조사, 광주·전남 자영업자 33% 창업 준비기간 6개월 미만 창업교육 참가 경험 '0회' 광주 37.1%·전남 57.1%에 달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창업 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창업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광주·전남 381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도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담겼다. 이 조사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중은 32.8%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중은 광주 32.5%·전남 33.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개월도 되지 않는 비중은 광주 6.6%·전남 3.8%였다. 이외 6~12개월은 광주 32.0%·전남 48.4%였고, 1~2년은 광주 25.4%·전남 11.4%였다. 2년 이상 준비한다는 업체 비중은 광주 10.2%·전남 7.1%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선부른 창업'을 한 가운데 절반(46.7%) 가량은 창업 전 창업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창업 전 창업교육을 '0회' 받았다고 답한 비중은 광주 37.1%·전남 57.1%에 달했다. 한 번이라도 받은 비중은 광주 24.4%·전남 19.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 폐업은 여의치 않고 생계형 창업은 늘어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전통서비스업 위주로 창업이 늘고 있어 경쟁 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창업률이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폐업률은 광주 13.0%·전남 11.4%로,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0.9%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와 전남 자영업자 폐업률은 광역시 평균(13.3%)과 도(道) 평균(11.5%)을 밑돌았다. 지난해 창업률은 광주 18.9%·전남 16.7%로, 전년(광주 18.0%·전남 16.3%)보다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창업률은 지난 2019년 23.8%에서 지난해 25.6%로 상승했다. 도·소매업종도 17.8%에서 18.3%로 올랐다. 반면 운수·창고 부문 창업률은 11.6%에서 10.8%로 하락하고, 제조업 창업률도 11.4%에서 10.2%로 줄었다. 전통서비스업이 많은 산업 특성상 광주·전남 모두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비중은 광주 67.8%·전남 86.0%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경북(87.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달 전남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2000명이나 늘어났다. 전남의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김재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창업 전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해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폐업시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업할 경우 200만원 상당 철거비용과 50만원 재도전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폐업 평균 소요비용 1410만원(2020년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크리스마스 케이크 미리 예약하세요”

광주신세계, 홈파티 먹거리 세트도

㈜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성탄절과 연말에 집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홈파티'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제과점들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 주문을 받는다. '몽슈슈'는 오는 12일, '루시카토' '궁전제과'는 19일까지 케이크를 예약 주문할 수 있다. 주문한 케이크는 24~25일 가져갈 수 있다. '몽슈슈'와 '루시카토'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10% 할인된 가격에 케이크를 내놓는다. 이외 같은 층 푸드마켓에서는 매장 음식들을 포장해주는 '홈파티 먹거리 세트메뉴'를 오는 31일 까지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샤보렌 2인 세트'(3만5000원), '고래사 홈파티 세트'(2만5000원), '스테이크앳바 3인 가족세트'(3만5000원) 등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신세계 지하 1층에 입점한 제과점 직원이 연말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 케이크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저소득층에 김장김치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100세대를 위한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복 담은 김장나눔'은 광산구 행복드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직원들은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할 김치를 마련했다. 양진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신혼부부 절반은 무주택자

대출 1년 새 20% 넘게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 신혼부부 절반 가량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무주택 비중은 광주 48.8%·전남 48.7%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율을 소유물건 수로 따지면 광주지역은 1건 43.4%, 2건 6.4%, 3건 이상 1.4%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주택 1건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2.2%, 2건 7.6%, 3건 이상 1.6%였다. 신혼부부의 연 평균 소득은 광주 5178만원·전남 4671만원으로, 전국 평균(5647만원)을 밑돌았다. 서울이 71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6198만원), 경기(56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9번째, 전남은 15번째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광주 신혼부부 소득은 4.2%(209만원) 증가했고, 전남은 5.2%(232만원) 늘었다.

전국 평균 소득은 전년 5380만원보다 5%(267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이 진 빚은 1년 새 20% 안팎 증가했다. 지난해 신혼부부들의 대출잔액을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값은 광주 1억2369만원·전남 9468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3.4%(2342만원), 20.9%(1635만원) 증가했다. 전국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00만원에서 1억2518만원으로, 18.1%(1918만원) 늘었다. 한편 광주·전남 초혼 신혼부부는 광주 2만5479쌍·전남 2만5611쌍 등 5만1090쌍으로, 전년(5만4696쌍)보다 6.6%(-3606쌍) 감소했다. 광주는 2만7255쌍에서 2만5479쌍으로 6.5%(-1776쌍) 줄고, 전남도 2만7441쌍에서 2만5611쌍으로 6.7%(-1830쌍) 감소했다. 이번 통계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을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우사육 실질적 알짜 정보만 '쑥쑥'

광주축협, 예비 축산인 대상 컨설팅

광주축협농협은 최근 나주 한우농가에서 한우 사육 컨설팅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신규 한우사육을 희망하는 예비 축산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축사 신축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았다. 축사 신축 때 우방 면적의 장단점(친환경 인증 기준), 급이기 높이(깊이), 급수기 종류(보온방법), 원치커튼 종류별 장단점, 퇴

비사 조건, 창고시설의 필요성 등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됐다. 또 축사 설비 부대시설로 벌크 및 밧 자동차인, 축분처리 장비별 장단점, CCTV설치 필요성, 환풍기 위치 및 각도,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교육에 포함됐다. 광주축협 관계자는 "예비 축산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한우 사육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